

“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 도약 없다”

자본·정보·권력 집중 ... 왜곡된 ‘서울공화국’
중앙정부 업무 과부하로 제기능·역할 못하고
지방정부는 손발 묶여 일 할 수도 없는 구조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지방분권 개헌

<1> 왜 지방분권을 해야 하나

지방분권 개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방은 20여 년 전부터 왜곡된 ‘서울공화국’에 맞서 지방분권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론자들은 자본과 정보, 권력을 이용해 지방의 목소리를 묵살해 왔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단순한 지방분권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도록 불가역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 아래 ‘지방분권 개헌’ 시리즈를 시작한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선택은 다른 아닌 존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가 2001년 6월 7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전달한 한국인을 위한 보고서 ‘위기를 넘어-21세기 한국의 비전’(BEYOND THE CRISIS : KOREA IN THE 21ST CENTURY) 서론에 나오는 글이다. 토플러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비롯해 정치, 교육, 정부 시스템을 모두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조언했다. 특히 경제개발 시대에 효과를 봤던 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집권의 비효율=개발시대 중앙정부는 효율적 국가운영으로 경제 규모 11위의 선진국 문턱까지 나라를 끌고 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비대한 중앙정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IMF 사

태, 카드 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500만 명 양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세월호 대응, AI 확산, 최순실 사태, 사드 논란 등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정책 실패가 잇따랐다.

국민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공정하지 못한 기득권자의 갑질, 3만달러를 넘지 못하는 1인당 국민소득, 대책 없는 청년 및 노인 실업, 결혼을 급감, 저출산·고령화 확대, 가정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확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등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실제 UN이 조사한 세계 행복지수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47위, 2016년 58위, 올해 56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3년간 단연 1위다.

부패지수도 높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해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우리나라를 52위에 올렸다. 2015년 37위에서 15단계가 추락했다.

갈등지수도 OECD 27개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다. 이로 인한 갈등 해결 비용만 1년에 82조~246조원에 이른다.

◇헌법의 실패=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헌법이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3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다. 30년 동안 세계는 민족국가에서 세계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예측 가능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의 위험사회로 진입했다. 국민소득도 1987년 3300달러에서 2015년 2만7000달러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독일은 1949년 이후 60여 차례 개헌을 했고, 스위스는 1848년 이후 150여 차례 개헌을 했으며 미국은 1787년 헌법 제정 이후 18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다. 주 헌법 개정까지 감안하면 매년 헌법을 개정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9차례 개정을 했다.

이거야 인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개정을 자주 하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고 정치적으로 더 안정됐다”며 “우리나라는 세상이 달라졌는데 내비개헌이 30년 전에 맞춰져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 회복을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중앙집권 시스템에서 중앙정부는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지난달 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최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역량을 집중시켜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못하고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 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과제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 과제다. 실제 선진국인 스위스, 미국, 캐나다, 벨기에, 영국, 독일 등 지방분권이 잘 된 국가가 소득수준도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정부는 여타 지방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생존할 수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를 이끌 수밖에 없다.

통일 준비를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에는 연방제 시스템이 녹아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연방제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자연스레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인 조정 변호사는 “소수의 의사 결정 구조로는 현재의 국가를 운영해나갈 수가 없다. 대통령에 집중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우리의 국가 상황을 타개하거나 중용하는데 부적합하다. 다수의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요구이고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매일신문=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전 국민이 내는 세금 표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집중 투자 균형발전·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지방분권 개헌 시급”

류한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인터뷰

류한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광주대 교수·사진)은 6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했던 것”이라며 “중앙집권 체제는 말 그대로 일제 식민시대와 군사독재시대에서 이어져 내려온 산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이 ‘분권’에 익숙지 않다는 점도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소외된 당해왔던 광주·전

남에서는 지방분권보다는 지역균형발전만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다”면서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중앙집권체제인 만큼 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권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밑바탕에는 지방자치와 있고, 그 속에서 시민자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집권에서는 국민만 있을 뿐 시민은 없다”면서 “시민의 자율성을 용납하지 않는 중앙집권 탈피가 지방분권의 실천적 목표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모집 안내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모집인원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캠프장소 마닐라 일라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링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 http://blog.daum.net/e.powe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